



『三國遺事』 〈洛山二大聖 觀音 正趣 調信〉 條의 분석적 이해

An Analytic Understanding of 〈The Two Great Saints of Naksan〉 in 《Samguk Yusa》

저자 (Authors)	신연우 Shin Yeon-Woo
출처 (Source)	한국민속학 33 , 2001.6, 175-198 (24 pages) The Korean Folklore 33 , 2001.6, 175-198 (24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민속학회 The Korean Folklore Societ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801224
APA Style	신연우 (2001). 『三國遺事』 〈洛山二大聖 觀音 正趣 調信〉 條의 분석적 이해. 한국민속학, 33, 175-198.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11/26 10:41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三國遺事』〈洛山二大聖 觀音 正趣 調信〉條의 분석적 이해*

신연우**

목 차

- I. 머리말
- II. 연구성과 검토
- III. 보살 만나기의 양상 분석
- IV. 보살 만나기 방법의 의미
- V. 맺음말

I. 머리말

『三國遺事』〈洛山二大聖 觀音 正趣 調信〉條는 義湘과 元曉의 대조적인 면모, 부처 만나기라는 주제의 무게, 調信 이야기의 극적 면모 등으로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며 이미 깊이 있는 연구가 여러 편 이루어졌다. 그런데 선학들의 연구를 읽다보면, 첫째 조신 이야기를 생략하고 논의를 전개한 것과 포함해 연구한 것이 있고, 둘째 의상과 원효가 부처를 만났는가 만나지 못했는가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되는 견해가 노정되고 있고, 셋째 이야기의 의미라든가 주제에 대한 견해 또

* 이 논문은 서울산업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서울산업대학교 교수

한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이야기에 대해 왜 이렇게 접근과 평가가 다른가 하는 호기심이 발동되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다시 原文을 찾아 읽게 되는데, 원문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해석에 그러한 다양성을 야기했거나, 다시 읽어도 역시 쉽게 정리되지 않는 면이 여전하다. 그러나 필자는 나름대로 선학의 성과에 도움을 받으면서도 선학들과는 다른 견해를 갖게 되어 이를 본고에서 밝히고자 한다. 특별히 새로운 견해라 할 수 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조에 들어 있으니 만큼 조신 이야기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당위¹⁾를 포섭하고, 반대되는 견해가 노정되고 있는 의상과 원효의 부처 만남의 실상과 의미를 재론하고, 나아가 전체 기사 of 의의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문을 상세히 분석해가면서 해석해 나가는 방법은 기존 연구와 다르지 않지만 조신 이야기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전체 이야기의 주제와 구도를 달리 볼 수 있었다.

재론의 발단이 기존 연구에서 나온 만큼 기존 연구를 비교적 상세히 검토하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1) 조신 이야기가 앞의 이야기들과 성격이 달라 보여서 함께 논의하지 않는 것이 일리가 있다. 앞의 이야기들에 우연히 별생각 없이 첨기되었을 수도 있다. 또는 명주, 낙산이라는 동일지 역으로 묶인 이야기일 수 있다. 그러나 항목을 따로 떼어 설정하지 않고 굳이 같은 항에 둔 일연의 의도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조신 항을 함께 살피는 것 또한 일리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편자인 일연도 생각하지 못했을 수 있는 본문의 의미를 깊이 있게 파악해 이해의 지평을 넓히려는 노력이 문학 연구의 기본 관점일 것이다. 필자로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전체 기사의 의미를 명료히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전체 기사 끝에 붙는 일연의 평과 찬시 두 편이 모두 조신에 대한 것임도 고려에 넣는다면 이 기사에서 조신 이야기가 갖는 중요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김현선 교수는 1. 보살의 세계에서 세간을 향하는 경우와 2. 세간의 범부세계에서 보살의 세계를 지향하는 경우가 짝이 되어 반대 입장에서 풀어나간 이야기라고 보고, 1에서 보살이 내려온 경우(원효), 내려오지 않은 경우(의상), 2에서 보살이 내려온 경우(범일), 내려오지 않은 경우(조신)로 보면 이야기가 서로 대응되게 만든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김현선, <미 발표논문>, 2001.

II. 연구성과 검토

<洛山二大聖 觀音 正趣 調信〉條를 다루고 있는 기존 연구는 다음의 것들이다.²⁾

- 김열규, 「‘낙산이성’과 신비체험의 서술구조」
- 조동일, 「불교설화에서 본 송고와 비속」
- 고운기, 「일연의 세계인식과 시문학 연구」
- 허원기, 「삼국유사 구도 설화의 의미」
- 유광수, 「만남과 깨달음으로 본 ‘洛山二大聖 觀音 · 正趣, 調信’의 의미」
- 김현선, 「불교관음설화의 여성성과 중세적 성격 연구」

김열규는 ‘의상은 관음불을 친견코자 발원하여 마침내 그 원을 이루고 있음에 비해, 원효는 관음 불상을 보았을 뿐 受肉한 관음불을 친견하는데는 실패’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조동일은 정반대되는 견해를 보여, 의상은 온갖 정성을 다 했으나 보살은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眞容을 보았다 하지만 모습에 관해서는 말이 없고 들린 소리만 적어놓았다고 했으며 원효는 정성을 들이지 않았는데도 보살이 스스로 나타났다고 했다. 김열규는 범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고 조동일은 범일이 보여준 일상의 모습이 보살이라는 이름의 진실을 제자리에 놓는 역할을 했다고 했다. 후학인 고운기와 김현선이 이에 상응되는 대조적 견해를 이었다. 고운기는 의상을 ‘치밀하고 정성스런 만남’이라고 했고, 김현선은 ‘관음보살

2) 김열규, 「‘낙산이성’과 신비체험의 서술구조」, 『삼국유사와 한국문학』(학연사, 1985년 재판).
조동일, 「불교설화에서 본 송고와 비속」, 『삼국시대 설화의 뜻풀이』(집문당, 1990).
고운기, 「일연의 세계인식과 시문학 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1993.
허원기, 「삼국유사 구도 설화의 의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논문, 1995.
유광수, 「만남과 깨달음으로 본 ‘洛山二大聖 觀音 · 正趣, 調信’의 의미」, 『연세어문학』 32호(2000).
김현선, 「불교관음설화의 여성성과 중세적 성격 연구」, 『구비문학연구』 9집(한국구비문학회, 1999).

의 진신이 의상에 나타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고운기는 원효를 '우연히 스치듯한 만남'이라고 했고 김현선은 원효가 색상에 사로잡혀 여인이 관음보살임을 몰랐지만 파랑새 신발 등 매개물을 통해 '속된 의미를 넘어서 고도의 비약을 가질 수 있는 불교의 깨달음에 근접하고' 있다고 하였다. 유광수는 의상 원효 범일 조신 모두가 첫 번의 절대자와의 만남에서는 깨달음을 얻지 못하지만 특정 계기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정리했다.

다음으로 김열규는 범일과 조신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조동일은 조신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김현선은 논문의 주제가 여성성과 연결되어 있기에 원효에 대한 직접적 언급과 의상에 대한 대비가 있고 범일과 조신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다. 고운기, 유광호는 조신조를 넣어 고찰해야 한다고 하고 원래는 없던 것이 부록처럼 끼워졌으나 실은 보다 구체적이고 소박한 이야기를 가지고 주제를 심화시키려는 적극적 의도가 있다고 보았다. 허원기는 주로 원효와 조신을 언급하고 있다.

김열규는 의상이야기가 vision-quest를 주축으로 하는 신비체험담의 일반적 골격을 유지하고 있기에 眞容을 친견했다는 결과가 보장되지만, 원효는 '齋戒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見像 탐색자로서 적격임을 보이지 못한 원효에게 부처는 원효의 願에 응답하는 자비로 解號의 시련을 주었으나 그 점에서도 그는 실패했다'고 하고 搜探 체계에서 벗어나 있기에 견상 탐색의 실패자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조동일은 숭고한 것을 아득하게 추구하는 귀족불교의 노선이 자기 발견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주지 못한다는 점을 의상이 보여주며, 보살이 비속하다 함으로써 숭고에 집착하지 않고 진실에 이를 수 있으며 비속한 사람이 자기 각성에 이른다고 했다. 나아가 범일이야말로 누가 보살이라고 하건 범속한 사람들의 일상 생활이 바로 진실임을 말해준다고 했다. 허원기는 의상에 대해 직접적 언급을 하지는 않지만 '성스런 세계에 대한 농후한 믿음을 가진 인물'³⁾로 보았을 것이다. 원효에 대해서는 성스런 세계에 대한 농후한 믿음을 가진 인물이 속된 세계 속에서 성스런 세계를 깨닫는 경우로 언급되어 있다.

다시 문제가 되는 사항을 정리해 보자, 의상과 원효는 보살을 만났는가 만나지

3) 허원기, 위의 논문, 34쪽.

못했는가? 조신 이야기는 이야기 전체를 이해하는데 열쇠가 되는 핵인가 아니면 변두리 주변 이야기일 뿐인가? 전체 이야기의 주제는 부처를 만날 수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을 가르는 것인가? 부처를 만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洛山二大聖 觀音 正趣 調信>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연구사 정리를 통해 얻게 되는 이와 같은 질문에 나름대로 답을 해야 할 것이다. 상반되는 해석이 가능하고 그 해석들은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저 절충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본고는 선학들의 논고가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것은 범일이나 조신을 제외하고 있고, 조신 이야기를 다룬 것들은 조신같이 하찮은 중생까지 깨닫는 이야기여서 독자들에게 더 현실감 있게 다가온다는 식의 인상주의적 해석에 그치고 있어서 네 편의 작은 이야기를 전체로 묶어보는데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보고 전체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 주제를 밝혀보고자 한다.

Ⅲ. 보살 만나기의 양상 분석

각각의 이야기의 자료를 간략히 들고 분석하면서 필자 나름대로 해석을 위해 강조해야 할 점을 지적하겠다.

(1) 처음 부분은 의상 이야기이다. 다음과 같이 간략히 정리할 수 있다.

- ① 의상이 당으로부터 와서 관음보살의 진신이 이 굴에 있다고 듣고 친견하려 한다.
- ② 재계 7일 만에 수정염주와 여의주를 얻었다.
- ③ 다시 7일 재계하자 그의 산 모습이 나타나서 대나무가 나타난 곳에 절을 지으라고 말했다.
- ④ 금당을 지었고 대나무가 없어지니 진정 보살의 산 형체가 살던 곳임을 알았다.

우선 의상은 힘들여 중국으로 유학했으나 돌아와서 이 땅에서야 보살의 진신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는 물론 불국토사상에 기인한 것이지만 보살

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네 편의 이야기 모두에 해당되는 사항인 듯 하다. 그러나 차이도 있는데 의상은 여전히 재계와 같은 엄숙한 의식을 중시하고 있고, 원효는 가까운 것이라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비속한 상황 설정으로 흘렀고, 범일이 만난 보살은 너무 비근해서 놓칠 뻔한 것이었으며 조신은 이야기의 주체가 우리와 같은 중생의 모습을 하고 있다.

재계한 지 7일 만에 용궁에서 수정염주와 여의주를 얻는다.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성과는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이것은 부처/보살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것은 유사 전편에서 등장하는 모티브의 하나인, 불교가 토속종교를 제압해 가는 과정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또한 의상이 부석사를 창건할 때 선묘의 도움을 받아 토속 종교를 제압하는 것의 다른 표현 또는 결과만을 드러낸 것일 수 있다.

의상이 얻고자 한 것은 이런 구슬이 아니다. 의상은 불법을 구현하는 것에 소명을 두었으며 그 내적 확증을 얻어야 했다. 그런데 그 내적 확증을 의상은 자신의 외부에서 찾으려 했던 것 같다. 그는 다시 7일의 재계를 한다. 첫 번의 재계로는 토속종교 정도는 제압할 수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토속종교와의 융합이 아니라 더 고차원적으로 간주되는 불법의 내면적 확증이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의 재계를 통해서 의상은 ‘그의 산 모습을 보았다.’ 김열규는 여기 보았다는 점을 중시했다. 그것은 내면의 확증을 얻은 것이고 그래서 낙산사를 창건할 수 있었다.⁴⁾ 원문에 ‘乃見眞容’이라 했으니 보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⁵⁾은 지나치다. 조동일은 보기는 보았지만 본 보람이 없다고 했다. 眞容이 나타났다고 했지만 어떤 모습인지 일언반구 언급도 없이 소리만 남았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어쩌면 이러한 부정적 견해는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수록된 의상 이야기에 영향을 입은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 기록에는 의상이 27일간의 재계 끝에도 佛聖을 만나지 못해서 바다에 뛰어들었으며, 용왕이 구해주었으나 진신은 끝내 나타나지 않고 소리로만 절을 지으

4) 이는 의상이 재대종교를 제압하고 부석사를 창건한 일과 외면적으로 같은 것인데, 본 이야기에서는 의상이 내적인 확증을 얻는 과정을 상술했다고도 볼 수 있다.

5) 김현선, 위의 논문, 30쪽.

라고 했다고 되어 있다.⁶⁾ 같은 이야기가 이렇게 달리 전하는 까닭은 알 수 없으나 여기서는 일연이 이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아, 유사의 본문을 중시하고 다른 세 이야기와의 관련성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의상이 금당을 짓고 대나무가 사라지자 비로소 ‘진정 보살의 산형체가 살던 곳을 알겠는지라’ 한 것은 의상이 진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점을 말해준다. 앞에서 보았던 것은 진정으로 본 것이 아니라는 말이 된다. 진정으로 진신을 보았다면 이런 소리가 있을 리 없다. 이런 점에서 유광수는 <낙산 이대성>조의 이야기가 모두 첫 번째 만남에서는 제대로 깨닫지 못한 주체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 이야기라고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얻었을 것이다.⁷⁾

이것은 한 편으로는 일연이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한다. 이 이야기는 본래 의상이 진용을 친견하지 못하는 내용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여지승람』은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구성한 설화집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일연은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하였지만 그래도 『三國遺事』는 짜임새 있게 구성된 재편된 이야기라는 사실을 피할 수는 없다. 재편 과정에서 의상이 진용을 친견하는 내용으로 수정이 가해졌으나 원래의 내용이 그대로 들어 있는 것이 후반부인 것이다.

—然이 왜 의상이 진용을 친견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는가 하는 점은 그의 다른 편을 참고해 이해할 수 있다. 『三國遺事』에는 부처를 만나는 사람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은 어떻게든 부처를 만나는 것으로 일연은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다. 그 단적인 이야기는 <努勝夫得, 怛怛朴朴>이다. 박박은 찾아온 여인을 쫓아내어 부처를 깨닫는 데 장애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부득은 자비심으로 부처를 깨닫고 스스로 부처가 되었다. 그러나 일연은 박박도 부처가 되는 것으로 설정을 하는 것이다. 박박은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으나 부처가 되고자 하는 뜻만은 있었던 것이고 일연은 이를 인정해주는 것이다. 부득이 목욕한 남은 물에 목욕

6) 『국역 新增東國輿地勝覽』 5권(민족문화추진회, 1988 중판), 538쪽.

7) 유광수, 위의 논문, 143쪽.

한다는 단순한 설정으로 박박이 부처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廣德, 嚴莊>도 결국은 둘 다 부처가 된다는 설정이며, 진자사는 미시랑의 혜택을 흠뻑 입었고 그의 맑은 교화를 받들어 스스로 자신을 개조하였다. 무엇보다 이 이야기의 조신이 부처를 보게 되는 설정도 그렇게 볼 수 있다.

즉 일연은 대부분의 경우에 마음을 먹으면 그 방법이 어떻든간에 부처를 만나거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전개시키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는 허원기가 말한 대로 상극형식이라기보다 ‘상생형식’⁸⁾이라 할 수 있다.

즉 의상 이야기 부분은 원래의 모습이 어떻든 일연은 의상이 眞身을 보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보다는, 『삼국유사』 전반의 내용에 걸맞게 의상이 眞身을 친견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의상이 부처를 만나는 과정은 그리 만족스럽게 여겨지지 않았을 것이다. 일연은 스스로가 의상의 귀족불교와는 다른 노선에 있었다. 오히려 민중불교라 할 수 있는 조동종의 선불교가 그의 사상을 이루고 있다. 그런 점이 오늘날의 독자로 하여금 의상의 방법이 부정적 함의를 떨 수도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진술로 남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점을 심분 이해한다 해도 결국은 의상이 부처를 보는 쪽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연의 전체 의도와 일치하는 해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둘째 부분은 元曉 이야기이다.

- ① 원효가 의상의 뒤를 이어 낙산에 와서 부처를 예배코자 했다.
- ② 벼 기을하는 여인과 농담/ 서답빨래하는 여인의 물을 버리고 새 물을 떠 마심
- ③ 파랑새가 ‘제호화상은 단념하라’하고 날아감
- ④ 절에 이르러 앞에 만난 여자가 관음의 진신임을 앎
- ⑤ 다시 굴에 들어가려 하니 풍량이 일어 못들어 감

원효가 ‘의상의 뒤를 이어’라는 것은 의상이 진신을 보았다고 알았기 때문에 자

8) 허원기, 위의 논문, 52쪽.

신도 부처를 만나기 위해 뒤를 이어 온 것을 나타낸다. 그런데 원효에게는 재계하는 과정이 없다. 김열규는 재계라는 수행 과정이 있어야 신성 체험을 할 수 있는데 원효는 그렇지 못하여 진신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일차적으로 막혀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것은 같은 부처를 만나기 위해서는 같은 노선과 과정을 가져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말해질 수 있는 것인데,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 원효가 재계 과정을 보이지 않는 것은 그가 부처를 만나는 과정이 의상과는 다르다는 점을 말하는 설정으로 보는 편이 무난할 것이다.

실제로 부처 만나기 또는 신성체험은 인간의 합리적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다. 일연은 부처 만나기의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오히려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을 보이기도 한다. 그 좋은 예는 피은편의 <朗智乘雲> 조이다. 낭지는 한평생 노력을 해도 보현보살을 만나지 못했는데, 지통은 일곱 살 된 종이었고 부처를 만날 것을 바라지도 않았는데 보살이 나타나서 계율을 주어 ‘정신이 활짝 열리고 지혜가 일시에 원만하여졌다.’ 물론 일연은 낭지가 그런 지통과 원효의 스승이 되었으며, 결국 제 10법운지에 사는 보살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

의상이 華嚴의 귀족불교를 따랐고 원효가 淨土敎라는 민중불교를 창시한 점은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다. 물론 원효는 유식의 틀 안에서 고도의 理論 佛敎를 전개하지만 민중들이 부처를 만나는 것은 이론불교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중이 唯識이나 華嚴의 난잡한 이론을 쫓아가지 못한다고 탓하는 것은 부처가 할 일이 아니다. 의상이 교리와 의식을 중시하는 쪽이었다면 원효는 의식도 교리도 무화시키고 부처를 찾는 마음 자체를 강조하는 다른 맥락에 놓여 있다는 것을 형상화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둘 다 부처를 본다. 그리고 둘 다 제대로 보지 못한다. 하나는 교리와 의식에 집착한 때문인 것 같고 다른 하나는 교리며 의식을 지나치게 파탈한 점에 기인하는 것 같다.

이어서 원효는 두 명의 여인과 농지거리를 주고받는다. 문제는 이 女人들이 觀音의 眞身이라는 점이고 원효가 그 점을 미처 몰랐다는 점이다. 여기서 원효가

부처를 못 본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본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원효는 지통처럼 별 노력 없이 부처를 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지통에게 나타난 보현은 자신이 보현임을 밝혔는데 이 여인들은 밝히지 않았으므로 원효는 그들이 부처임을 알 수 없었다. 원효가 이들이 부처임을 알지 못했던 이유가 두 번째 여인과의 문답에서 나온다. 더러운 빨래물을 주자 원효가 이를 버리고 새로 물을 떠마셨다는 것이다. 즉 아직도 원효는 더러움과 깨끗함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더러움과 깨끗함이 오로지 마음의 소산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원효가 아직도 그러한 色相의 구분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면 원효가 부처를 만난 것은 그러한 色相 구분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가능한 것이었고, 부처를 만났지만 부처인지 몰랐던 것은 그러한 색상의 물구분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알고 있었던 바 부처와 중생이 하나라는 것을 철저히 실천했다면 여인을 부처로 보았을 터이고 그렇다면 파랑새로부터 부처보기를 단념하라는 아픈 소리를 듣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면 모든 시간에 모든 장소에서 모든 여인을, 모든 사람을 부처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게 되지 않을까? 원효의 말대로라면 그럴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론일 뿐이고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여기에 원효 불교의 문제가 있다. 모든 사람이 부처이지만 어떻게 모든 사람이 부처일 수 있는가? 원효는 부처를 보겠지만 그가 부처인 줄 어떻게 아는가?

파랑새의 말을 듣고도 원효는 절에 이르렀다. 거기서 아까 만난 여인들이 부처의 진신임을 깨닫게 되었다. 깨달았지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지나고 나서야 부처인 줄 알게 되는 것은 처음부터 부처를 깨닫는 것과 다르다. 중생이 부처임을 나중에야 깨닫는 것은 중생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한다. 처음부터 중생이 부처임을 알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어려운 일이다. 원효 불교는 이론적으로는 타당하기에 부처를 볼 수 있으나, 실천적인 문제로 인해 그 진상을 보기는 어려운 것일 수 있다.

그래서 원효는 다시 그 신성한 굴에 들어가고자 했으나 풍량이 일어 관음의 모습 보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 원효의 이야기는, 원효가 <元曉不羈>조에서 속인의 복색으로 바꾸어 입고, 광대의 박을 얻어 ‘일체 거리낄 것이 없는 사람은 한결같이 죽고사는 관념에서 초월한다’라는 말을 따다가 무애라고 이름을 짓고, 노래와 춤으로 가난뱅이와 어중이떠중이까지 교화시키는 위대한 모습과, <蛇福不言>에서 사람 구실도 못하는 사복에게 편잔을 당하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하나의 장면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그것은 그의 위대함과 함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었는데, 이 조에서는 부처를 보는 모습과 결국 진신을 보지는 못했다는 것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보면 일관성 있게 해석된다.

(3) 세 번째 부분은 梵日의 이야기이다.

- ① 범일은 당나라에서 신라에서 왔다는 왼쪽 귀가 떨어진 사미승을 만났다. 그가 ‘본국으로 돌아가면 저의 집을 이룩해달라(須成吾舍)’고 하는 말을 들었다.
- ② 귀국 후 십여 년에 그 사미승이 꿈에 다시 나타나, 약조를 상기하고 그 집을 찾았다.
- ③ 덕기방 한 여인의 아들의 말을 듣고 다리 밑에서 왼쪽 귀가 떨어진 돌부처를 찾았다.
- ④ 그 부처는 전날 본 사미승과 같았는 바 이는 정취보살의 석상이었다.

이 이야기의 가장 큰 특징은 별 갈등이 없다는 점일 것이다. 의상은 부처를 만나기 위해 각고면려했고 원효는 의도적 파탈을 강조했으나 분별심을 다 떨쳐내지 못했고, 뒤에 볼 조신은 그야말로 인간적인 각골의 고통을 겪게 된다. 이에 비해 범일은 그저 미천해 보이는 상좌중과의 약조를 잊었다는 정도이다. 그 정도를 굳이 이 이야기의 변화와 굴곡으로 본다면 범일은 원효처럼 아무 노력 없이 부처를 만났다는 점과 그 사미승이 부처인줄 몰랐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의상에게는 미리 나타나주지 않았던 부처가 원효와 범일에게는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의상 불교보다는 원효나 범일의 불교를 인정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그것은 의상이 보여준 화엄의 귀족불교노선이 일연에게는 좀 거리감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었던가

하는 추측을 하게 하는 것이다.

원효는 끝까지 부처를 제대로 만나보지 못했는데 범일은 결국 부처를 찾아냈다는 점은 원효와도 크게 다른 점이다. 그런데 이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원효는 더러움과 깨끗함의 분별심이 잔존하는가 하는 시험을 받았는데, 범일은 어떤 시험도 받지 않았다. 범일이 굳이 부처를 찾아 나서지 않았는데도 부처가 나타났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는가? 그것은 바로 범일이 ‘굳이 부처를 찾아 나서지 않았다’는 점에 있는 것 같다. 의상은 ‘관세음보살의 진신이 동해변 굴에 있다는 말을 듣고’ 그를 만나기 위해 재계를 했던 것이고, 원효는 ‘의상의 뒤를 이어 여기와서 예배코자’ 했던 것과 달리, 범일의 이야기에서는 범일이 굳이 부처를 만나고자 했다는 어떤 진술도 없다.

본문에서는 이들의 차이에 대한 다른 어떤 언급도 없으므로, 그 점이 바로 범일이 부처를 만날 수 있었던 까닭이라고 한다면, 이는 일연이 부처를 만나고자 의도하는 것 자체가 부처와의 만남을 막는 장애가 되고 오히려 그러한 의도도 없이 살아갈 때 부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했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⁹⁾ 그러한 의도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부처와 중생을 굳이 구분해 인식하지 않는 태도를 말한다. 부처와 중생을 구분하면 부처를 만나고 부처가 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야하겠지만 물론 그렇게 해서 부처를 만날 수도 있다, 그러한 구분을 버리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부처를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물론 일연이 선불교 사상의 맥락에 있기에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허원기의 업적에서 잘 설명되고 있거니와, 일연이 전란의 와중에서 ‘중생계는 줄어들지 아니하고 부처계는 늘어나지 아니한다(生界不減 佛界不增)’는 話頭에 매달려 중생과 부처의 관계에 대해 수행 득도한 사실과, 異類中行, 披毛戴角, 和光同塵의 禪思想의 치열한 頭陀行脚과의 연관 속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¹⁰⁾ 이에 대하여는 허원기의 논문 이상으로 잘 설명할 수 없으므로 그 논문에 미룬다. 사미승이나 부처가 모두 왼쪽 귀가 떨어져나간 인물로 설정되어

9) 이 점은 다른 한편으로 지동과 낭지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다.

10) 허원기, 위의 논문, 37쪽.

있는 것도 부처가 그 범속함과 누추함의 중생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선불교적 설정에 잘 일치하는 것이다. 이 점은 삼국유사 소재 설화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¹¹⁾

<洛山二大聖 觀音 正趣 調信>條가 범일의 행적을 특히 강조하기 위한 것임은 일연의 註로도 나타난다. 일연의 註에 따르면 원래 고본에서는 범일의 사연을 앞에 기록하고 의상과 원효의 사적이 뒤에 있었는데, 일연이 시대순으로 다시 배열했다는 것이다. 일연은 시대순에 어긋난 고본을 나무랐지만, 달리 생각하면 그 점은 고본이 시대순을 몰라서라기보다 범일의 행적을 중시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¹²⁾

물론 일연도 범일을 가장 긍정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범일은 별 장애 없이 부처를 만나는 것이다. 처음에 상좌승이 부처인 줄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다른 시련 없이 결국 부처를 만났다는 것은, 의상이 보기는 보았으나 그 의의가 적고, 원효는 부처인 줄 알게는 되었으나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된 것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지나치게 숭고함을 추구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비속하게 과탈하지도 않았기에 범속한 일상생활 그 자체에서 부처를 만날 수 있었다는 평가¹³⁾가 요령을 얻은 것이기도 하다. 의상과 원효 이야기의 극적이고 대조적인 면모 뒤에 說話性과 現實性이 調和된¹⁴⁾ 梵日의 이야기를 배열한 것도 일연이, 고본과는 다른 관점으로, 범일 이야기의 중요성을 나타내려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¹⁵⁾

11) 조동일, 위의 논문, 위의 책, 243쪽.

12) 조동일은 이를 민간전승의 특징으로 파악하고 역시 범일을 평가하지는 자료라고 했다.(위의 책, 243쪽.)

13) 조동일, 위의 논문, 위의 책, 242쪽.

14) 고운기, 위의 논문, 29쪽. 고운기는 범일 이야기에서 현실성과 설화성을 지적했으나 ‘조화성’이라고까지 말하지는 않았다.

15) 범일 이야기의 다음으로 의상이 얻었던 보배구슬이 전란에도 온전히 보존된 사연이 진술되었다. 이 부분은 분량도 적지 않다. 지금 생각으로는 이 이야기는 이 조가 명주, 낙산이라는 동일지역의 이야기이고, 앞의 의상의 이야기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함께 묶인 것이 아닌가 한다. 혹시 다른 어떤 의미가 있을 법도 한데 아직까지는 알 수 없다. 우선은 이 이야기는 논의에서 제외하고 그 다음으로 전하는 조신 이야기를 살펴도록 한다.

(4)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調信 이야기도 몇 단락으로 나누어 보인다.

- ① 옛날 신라시대 조신이 세류사 농장 관리차 왔다가 태수의 딸을 사모하게 되었다.
- ② 부처에게 인연맺기를 빌었으나 그 여인은 다른 곳으로 혼인하였다.
- ③ 부처를 원망하다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 여인과 결혼하였으나 혹독한 가난에 시달리어 자녀를 잃고 서로 헤어지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게 된다.
- ④ 작별하고 길을 나서는 참에 잠에서 깬다. 머리털이 다 썩다.
- ⑤ 인간세상에 뜻이 없고 탐욕이 사라졌다.
- ⑥ 꿈에서 어린아이를 묻은 곳을 찾았더니 돌미륵을 얻었다.
- ⑦ 정토사를 세우고 불도 수업에 정진했다.
- ⑧ 일연의 찬시

조신도 결국은 부처를 만나기는 한다. 꿈속에서 죽은 어린아이가 바로 부처였는데 조신은 부처를 알아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죽음에 이르도록 했지만, 그래도 부처를 만나기는 했다. 꿈속의 김씨부인이 조신을 깨달음으로 인도한 부처였을 수도 있다.¹⁶⁾ 부처의 도움으로 조신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과정을 그렸다는 것이다.

조신 이야기는 古本에는 없던 것을 일연이 붙여놓은 것처럼 보인다. 이야기의 성격이 앞의 것들과 많이 달라 보여서, 高僧求道說話인 앞 이야기와 따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었다. 최근에 와서야 조신 이야기도 한 항목에서 같이 다루어야 한다는 생각이 나타났다.¹⁷⁾ 고운기와 유광호는 오히려 조신 이야기야말로 평범한 중생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앞의 이야기들보다 더 현실감 있고 내용에서도 더 충실을 기했다고 보았다.¹⁸⁾ 조신 꿈의 섬세한 문장 전개와, 찬시가 조신에 대한 것만 전한다는 사실을 보면 타당한 견해로 보인다.

그러나 조신 이야기는 의상 이야기와 반대편에서 통하는 면이 있다. 의상은 숭고한 것에 집착하여 재계의식을 거둬한 끝에 부처의 편린을 보았다면, 조신은 비

16) 유광수, 위의 논문, 위의 책, 137쪽.

17) 고운기, 위의 논문 ; 유광수, 위의 논문, 위의 책, 116쪽.

18) 고운기, 위의 논문, 34쪽 ; 유광수, 위의 논문, 위의 책, 136쪽.

록 꿈이기는 하지만 혹독한 가난의 고통 끝에 부처를 보게 된다. ‘비록 꿈이었으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조신의 뼈저린 노동체힘은 선적 수행 과정과 같았기에’¹⁹⁾ 조신은 부처를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의상의 부처만나기가 완전한 긍정적 시각으로 구성되지 않았던 것처럼 조신의 중생적 삶도 완전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 같지는 않다. 조신이 부처를 만나기는 하지만 그러한 고통 끝에서라야 가능한 것이라면 평범한 일상적 삶을 누리는 중생들은 부처를 만나기 어렵다. 일연은 그러한 설정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의, 조신이 꿈에서 깨어난 모습에 대한 묘사는 일연의 선불교에서 중생을 보는 모습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아침이 되어보니 머리털이 죄다 세고 정신이 멍하니 도무지 인간세상에 살 생각이 없어지고 그 괴로운 생애가 벌써 싫어지매 평생의 고생이 지쳐 물린 듯, 탐욕스런 마음이 씻은 듯 얼음 녹듯 풀어졌다.²⁰⁾

일반적으로 꿈속에서 조신의 삶이 우리 중생들의 일상적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일상적 삶은 결국 고통뿐이니 탐욕을 버리라는 명백한 주제를 읽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전체가 부처만나기의 문제를 다룬 것이다. 삶이 고통일 뿐이니 삶을 부정하라는 식의 이야기는 선불교의 실상과 어긋나는 지나치게 단순한 논리이다. 중생의 삶 속에는 중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도 이미 있는 것이다. 조신의 꿈속에서의 삶은 중생의 삶인데, 삼국유사에서 보이는 중생에 대한 긍정적 시각, 일연의 선불교 사상과의 일치점을 참고하면, 조신의 꿈속에서의 중생적 삶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중생은 그런 삶 속에서 부처인 것이다. 조신의 꿈속에서의 중생의 삶을 온통 부정하는 것은 부처도 있을 곳이 없어지게 된다. 점을 일연 불교사상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조신 이야기는 본 이야기에 부록처럼 붙은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부록으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의상 이야기가 원효 이야기와 짝이 되어 균형을 이루듯 다른

19) 허원기, 위의 논문, 48쪽.

20) 리상호 역, 『신편 삼국유사』(신서원, 1994), 273쪽.

이야기들과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그 전체적 양상을 다음 항에서 고찰해 본다.

IV. 보살 만나기 방법의 의미

조신 이야기가 비록 나중에 끼워넣어진 것이라 해도 <洛山二大聖 觀音 正趣 調信>條의 네 이야기가 모두 부처를 만나는 내용이므로 조신이 결국 부처를 만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 그러나 고통 끝해야 부처를 만나게 된다는 설정 자체가 긍정적인 함의를 띠다고 적극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의상도 원효도 범일도 조신도 부처를 만나므로, 만남 그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물론 조신은 평범한 중생의 모습으로 껴잡힌 공감을 얻게 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도 역시 스님인 것이다. 스님으로 부처를 만난다는 설정이 네 이야기 모두에 공통된 것이다. 일연은 위에 말했듯이 인간은 佛界의 끝이건 衆生界의 끝이건 결국은 부처를 만난다는 설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만남의 方式이 問題가 된다.

의상 이야기의 특징은 조동일의 지적대로 숭고함 엄숙함이고 원효이야기는 비속함과 파탈이 특징이다. 상대적으로 범일과 조신의 이야기는 범속함을 특징으로 한다고 하겠다. 범일은 특출한 면모를 보이지 않는다. 의상과 같은 재계의 수행도 원효와 같은 파탈도 없다. 그저 중의 법도대로 설법을 하고 도를 전할뿐이다. 조신은 더욱 범속한 사람으로 보인다. 어여쁜 여인에 혹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중생의 모습을 그대로 전한다. 그러나 그가 원효처럼 비속함을 강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은 아니다. 조신은 원효와 달리 갈등하고 가책을 받는다. 원효처럼 부처와 농지거리를 주고받는 수준이 못되고 관음에게 빌고 의지하고 원망한다.

의상은 부처를 만나기는 했지만, 지나친 엄숙함으로 부처의 眞容을 상세하게 볼 수 없었다. 자신이 왜소해졌기 때문이다. 지나친 계율과 의식과 엄숙함은 부처 앞에서 자신이 작아지게 해서 결국 부처를 제대로 대하지 못하게 한다. 부처가 시

키는 대로 하는 것이 의상이 이를 수 있는 최대의 성과이다.

원효는 그 반대에 있다. 지나친 파탈로 인해 세상을 모두 농지거리로 여겼다. 만나는 사람마다 농을 던지고 받았으나 모든 것이 농이기만 해 眞을 알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원효는 고승이지만 그의 행동은 보통 사람이 따라 할 수 있는 바가 아니라면 그 의의가 반감된다. 일연은 <사복불언>에서도 원효가 사복이 들어가는 연화장 세계에 동참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쓴 바 있어서 그의 구도 방법에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모든 것에 규율도 없고 엄숙함도 없이 파탈한 사람은 눈앞의 모든 것이 부처이기는 해도 실제로 사람이 이를 수 있는 경지가 아니다. 원효조차도 최후의 분별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부처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원효조차도 이를 수 없는 것을 보통 사람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물론 원효의 방법은 의상과는 달리 우선 쉽게 부처를 만나게 한다. 주눅들지 않은 自我는 絶對者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對等해진다. 그럴 때 오히려 부처조차 그 모습 그대로 보이게 된다. 그러나 절대자와 비교하는 순간 분별심이 고개를 든다. 그러면 도로아미타불이 된다. 정성스럽고 치열한 수행은 부처를 보기 어렵게 하고, 농조의 가벼움은 부처의 의미를 알지 못하게 한다. 원효는 파탈로 부처를 쉽게 보았으나, 차별화하는 분별심을 아직도 여의지 못했으므로 부처를 깨닫지 못했다.

그러면 절대자와 비교하지 않고 부처를 볼 수 있는 길은 있는가? 그것은 범일이 보여주었다. 그것은 일상의 삶을 사는 것이다. 굳이 부처를 찾아보려고 하는 진지하거나 또는 진지함이 역전되어 나타나는 파탈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의상과 원효 모두 부처를 만나고자 동해 낙산의 굴로 찾아들어갔던 사람들이다. 그러나 만나고자 의도해서는 부처를 만날 수 없다.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만날 수 있다. 그러나 眞容의 전면목을 제대로 보지 못하거나, 만남이 지나고 난 뒤에야 깨닫게 된다.

범일은 왼쪽 귀가 떨어져나간 부처의 진용을 보았다. 의상이 부처의 모습에 대해 한마디도 못하는 것과 달리, 원효가 만난 여인이 부처였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과 달리, 범일은 부처가 귀가 없는 상좌중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

고, 그것이 부처의 본 모습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의상이 만나는 부처는 귀가 떨어져나간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의상의 엄숙함에 걸맞게 온전한 부처의 相好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부처의 본 모습이 아닐 수 있다. 그렇게 구하는 의상에게 귀 떨어진 부처가 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의상을 실망하게 할 것이다. 원효에게는 부처가 귀 떨어진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원효조차도 부처가 귀 떨어져 있는 불완전해 보이는 모습은 온전히 용납되지 못하는 것 같다. 엄숙함에서 벗어난 원효도 부처가 귀가 떨어져 있다는 사실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다. 그것은 그가 여염의 여인네들과 농을 하지만 여인네의 더러움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과 같다. 그것은 사실은, 원효의 작위적 파탈은 의상의 진지함을 뒤집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유사 원문에서는 ‘원효가 의상의 뒤를 이어(繼踵而來) 예배코자 했다’는 말로 나타난다. 원효는 겉으로 드러난 행적은 판이하게 달랐지만 부처를 보고자 의도적으로 애쓰는 모습은 의상과 같은 것이다.

범일은 이러한 적극적 의도를 보이지 않았다. 그는 중으로서 공부를 하고 ‘설법하는 모임에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였다. 굳이 따로 부처를 만나기 위해 애를 쓰지 않았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부처에 연관되어 있을 뿐이었다. 그런 범일에게 부처가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준다. 그 귀 떨어진 부처를 찾은 범일은 전각 세 칸을 지어 그 불상을 모셨다. 범일은 귀 떨어진 부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중생계와 연결되어 있는 부처의 모습은 귀라도 떨어진 모습, 온전하지 못한 불구의 부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연 시대 부처의 모습이었을 터이다.

범일로 이야기가 완결될 수 있다면 조신 이야기는 왜 붙였을까? 그것은 범일의 日常의 모습을 강조하는 것이 또 하나의 고정된 부처의 모습을 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즉 범일의 일상을 강조하여, 아예 일상에 빠져 버리는 조신은 부처를 보기에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다. 일상에 빠지게 되면 부처를 忘却하게 된다. 그것이 조신이 나중에 부처인 줄 알게 되었지만, 어린아이를 굶겨 죽이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조신이 빠져버린 일상은 부처의 세계를 망각한 세계이다.

世界가 비록 毀損된 것이기는 하지만 부처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과 부처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세계에 산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삶을 유도한다. 이는 의상이나 원효와는 대척점에 있는 것이기도 하다. 부처의 질서로 이루어지지 않은 세계는 고통만의 세계이다.

일연은 다른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조신도 결국에는 부처를 만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이 세계가 부처의 秩序로 이루어져 있어서 모든 사람은 결국은 부처를 만나게 된다는 일연 자신의 부처관을 표방한다. 일연은 조신과는 달리 부처의 세계가 이 세계 내에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다. 그래서 조신으로 하여금 부처를 보게 설정하는 것이다. 그 점이 바로 이 조의 모든 인물들이 부처를 만나는 것으로 이야기를 구성하게 하는 것이다.

이제 이 기사 <洛山二大聖 觀音 正趣 調信>條의 의의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부처로 표상될 수 있는 진리에 다가서는 모습은 보통 이 네 가지로 포섭될 수 있을 것이다.²¹⁾ 하나는 진리 자체를 절대화하고 다가서기 위해 경건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태도이다. 둘째는 그에 정반대되는 태도로서 진리가 별 것이 나면서 구속을 깨고 파탈을 일삼는 태도, 도통한 것처럼 일상을 거리낌 없이 대하는 태도이다. 이 둘은 가장 흔한 것이면서 사실은 쉬운 것이다. 대부분은 이러한 태도를 갖기 쉽다. 그러나 일연이 이 기사에서 보여주는 태도는 이의 중간에 있다. 그것은 일상이다. 일상의 삶을 잘 유지하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다. 이는 선불교에서 말하는 바, 평상심이 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연이 조신의 삼화를 굳이 끼워 넣고 말하고자 하는 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일상이 도이지만 일상에 빠져버리면 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해보자. 조신의 일상은 규범이 없는 일상이다. 범일의 일상은 부처라는 규준이 있는 일상이다. 일상에는 이와같이 두 중

21) 경기대학교 대학원의 박은영은 이 설화의 네 삼화가 각각 불교의 4제인 苦集滅道の 단계와 대응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보았다. 의상의 集, 원효의 滅, 조신의 苦, 범일의 道の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이야기들을 함께 엮은 것에 대해 더 짜임새있는 이해를 얻을 수 있다.

이 이야기의 의미의 해석에 어느 정도 비약이 있다. 그러나 선학들의 연구에서 이미 수용된 것이고, 문학연구가 단순한 논리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용인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류가 있다. 부처를 보는 데 필요한 일상은 그냥 일상이 아니라 규범과 기준이 있는 일상인 것이다.

이 기준이 나의 외부에 존재하느냐 내부에 존재하느냐에 따라 또 논의가 진행될 수 있지만 일연은 그 점까지는 말하지 않았다. 일연은 아직까지는 부처라는 신적 존재가 일상 삶의 규범일 수밖에 없으며 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가능성은 생각해보지 않은 시대의 인물이었다. 외적 규범이 아니라 철저히 내면적 규범에 의한 일상이라는 성리학적 개념은 후에 조선조 사대부들에 의해 시조문학으로 형상화되었다.²²⁾

V. 맺음말

본고에서는 『三國遺事』 <洛山二大聖 觀音 正趣 調信>條를 조신 이야기를 포함해서 주제를 새로이 파악하려 애써 보았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연구와 표나게 달라진 점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기존 연구에서 원효 의상 등이 부처를 만났는가 못 만났는가에 중점을 두었던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들은 부처를 만나기도 했고 못 만나기도 했다는 것이 이야기의 실상이다. 의상은 부처를 보았지만 모습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할 수 없었고 절을 세우고 나서야 새삼스레 부처가 살던 곳을 알게 되었다. 의상은 여인네로 나타난 부처를 보았지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이들은 부처를 보았으면서도 진정으로 본 것이 아니었다. 이 만나기도 하고 만나지 못하기도 한 이중성이 이 이야기의 진실이다. 이렇게 보아야 다른 곳에서의 원효 이야기에서 원효가 이중적으로 출현하는 양상을 일관성 있게 이해할 수 있다. 일연은 만남에서 부처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못 만남에서 부처 만났기의 한계성을 보여주었다. 가능성이 있기에 만나려고 해야 하고 만난 것에 한계

22) 이 주제에 대해 논한 것으로는, 신연우, 『사대부 시조와 유학적 일상성』(이회문화사, 2000)을 참조할 수 있다.

가 있기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부처를 만나려 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부처를 만나기 위해 숭엄한 의식을 중시하거나 의식과 제도를 초월하거나 하려는 두 가지 양단적인 태도를 갖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는 부처를 만날 수 있게는 하지만 완전한 만남을 이루게 하지는 못한다.

둘째로 조신 이야기를 넣어야 이야기의 주제가 선명해진다는 점이다. 조신 이야기를 연구에 포함시킨 것이 이미 있지만, 조신 이야기가 전체의 주된 주제를 형성한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다. 고본의 배열이 그렇고 조동일의 지적이 있었듯이 범일을 평가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다. 그러나 조신 이야기를 넣음으로써 범일의 행적이 더욱 구체성을 갖게 되었다. 범일의 행적을 그저 단순히 일상적 삶이라는 말로 이해하려는 태도에 선을 긋는 것이다. 범일의 일상은 부처라는 질서를 내재한 일상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 그런 부처의 모습을 망각하고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조신의 일상을 통해서 뚜렷이 대비가 되는 것이다.

셋째로 조신 이야기와의 대비를 통해서 범일의 일상에 조건을 달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냥 일상이면 용납되는 것이 아니라 부처를 가진 일상, 더욱 보편화해 말하면 규범을 가진 일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점은 훗날 사대부 시조를 통해 존재하게 되는 바, 내면적 질서를 갖는 일상의 개념으로 문학사적 전개로 연결해 볼 수 있다.

그밖에 본고를 통해서 범일이 찾은 부처가 귀가 떨어져나간 모습을 하고 있는 의의가, 부처의 진실된 모습은 미적으로 완전한 그것이 아니라 현실 중생계의 귀 떨어진 모습을 반영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점 등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점은 조신의 중생적 삶을 부정하기만 해서 부처도 또한 볼 길이 없다는 것과는 같은 맥락에 있다. 조신의 중생적 삶은 기형적이고 불완전한 중생의 모습을 보이지만 부처의 세계 또한 그 가운데 말고는 찾을 길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일부러 기형적이고 파탈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른 길이 아니라는 점을 일연은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이 바로 일연 불교의 특징이기도 한 것은 이미 지적되었다.

기존 연구에서 얼마나 진척을 보였는가 궁금하기도 하지만 본고가 가능했던 것은 본 기사문을 의미 있게 읽어낸 선학들의 시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본고의 처음도 마지막도 선학들의 기존 연구를 검토하며 짚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선학들이 연구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본고가 다른 논문을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An Analytic Understanding of 〈The Two Great Saints of Naksan〉 in 《Samguk Yusa》

Shin, Yeon-Woo

It is not important whether Wonhyo and Uisang really met Kwaneum or not. The gist of this chapter lies in the fact that one could and could not meet Kwaneum at the same time. Uisang perceived Kwaneum but he could not say anything about Kwaneum's appearance because he did not know what it meant. Wonhyo also met a woman who actually was Kwaneum but he could not recognize it.

Ilyon told us an ability to meet Kwaneum or Buddha through our "seeing", and our limitation as human beings through our "not seeing". As long as we have the ability to meet Buddha we must try to do so and we must make our efforts to meet Buddha since the ability of human beings is limited.

Another attempt was made to explain that the story of Choshin made the theme clearer. It is not even, I think, that weighing the Choshin story as the most important or regarding as a different story from the other part of the chapter. Main theme of this chapter is to estimate Bumil. But insertion of the Choshin story can embody the meaning of Bumil's activities more concretely. So we do not appraise Bumil simply because of "everyday always-ness". We can realize from Choshin that without Buddha in one's mind, "everyday always-ness" is nothing.

Besides, we could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earless Buddha of Bumil, as the reflection of the weakness of all mankind. This shows the paradox that we cannot see Buddha by denying Choshin's life. Ilyon also said that showing the queerness of one's life is wrong either.